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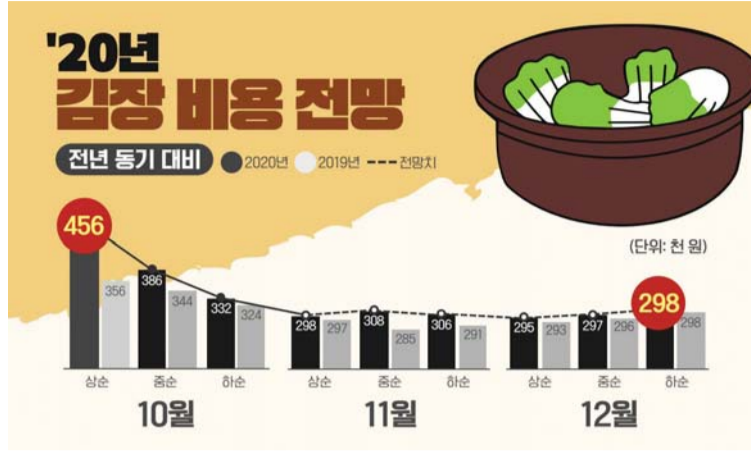
김장 늦게 할수록 저렴...11월 중순부터 할인

20포기 기준 30만원...11월 상순·12월 하순 16만원 차이
농식품부, 내달 11일~12월 2일 최대 1만원 할인쿠폰
농협 판매장·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몰 최대 20% 할인

올해 김장은 늦게 할수록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11월 중순부터 관련 할인행사를 본격적으로 펼친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0.4포기 줄어든 21.9포기가 될 것으로 농정 당국은 내다봤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인 가구 김장비용은 11월 기준 3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지난 14~16일 소비자 60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장김치 조달 형태는 '직접 담근다'가 62%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보다 1%포인트 감소했고, '시판 김치를 구매한다'는 답변이 지난해 19%에서 24%로 5%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1.9포기 전년보다 소폭(0.4포기) 줄었다. 김

장 규모를 줄인 이유는 '김장비용 부담'이 51%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소비 감소(25.5%), 가장 김치 재고(10.8%) 등도 있었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경기 북부 지역부터 시작돼 12월 하순 마무리되고, 11월 하순(33%)에서 12월 상순(24%)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치 20포기를 담근다고 가정할 때 드는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30만원 안팎이다. 배추 9만원, 무 2만2000원, 고춧가루 6만2000원, 간마늘 1만2000원, 대파 6000원, 쪽파 1만1000원, 생강 1000원, 미나리 1만5000원, 갓 8000원, 굴 3만6000원, 젓갈 2만8000원, 소금 1만원이 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급적이면 김장을 늦게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장용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하기인 11~12월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장을 10월 상순에 했을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45만6000원이 들지만, 점차 하락해 12월 하순에는 29만8000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을 연말에 한다면 지급보다 15만원가량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의 하나로 할인쿠폰 지원·할인판매 등을 연계한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추진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2월2일까지 농축산물 물에 최대 1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20% 할인권을 뿌린다. 이는 김장 채소류와 돼지고기를 20% 싸게 살 수 있는 할인권으로, 1만원 어치 구매할 때는 2000원을 할인 받는다. 할인 받을 수 있는 매장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하나로마트, GS리테일,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전문점, 온라인쇼핑몰 등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또 다음 달 5일부터 12월24일까지는 전국 농협 판매장 800곳과 대형 유통업체가 배추·무·마늘·고추 등 김장용 채소류를 시중보다 2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도 20% 할인권을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벌이고 공영홈쇼핑에서는 여수돌산갓 김치 등 김치 특별판매전을 11월 중하순에 펼친다. 직거래장보방(baroinfo.com)과 관련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주변 장터와 김장 할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배추 수급이 불안해지면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7만5000t)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t)을 방출할 방침이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 2만5000t은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방출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20%까지 확대한다. 무도 김장철 출하량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4만8000t)을 확보하고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12월 출하할 수 있는 제주 월동 무의 조기 출하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재해 농가 금융지원 농어촌공사 11월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매 자금 이자와 농지 임차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리금 상환 연기 또는 감면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1월30일까지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농가는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들 농가에는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지원한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준다.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되며, 농가 단위로 피해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해당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1140 농가에 66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카드 없이 출금" 스마트 ATM 출금 서비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 이용자라면 카드 없이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뺄 수 있다. 28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스마트뱅킹 앱으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스마트 ATM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 접속(로그인)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ATM의 NFC(무선 통신 기술) 영역에 가까이 대면 인증번호 등이 자동 전송돼 현금이 출금된다. 광주은행 오픈뱅킹을 이용할 때는 다른 은행 입출금계좌에서도 현금을 뺄 수 있다. 또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서는 최근 '도래와 나'라는 신규 서비스가 선보여졌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적금, 펀드 및 노후준비 투자 등 자산운용 비중을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할 수 있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광주은행 ATM과 지정된 편의점 등에서 현금인출, 결제,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정찬암 부행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코로나 대비 훈련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8일 나주 본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임시사업장을 가동하는 훈련을 했다. <한전 제공>

"외상값 못받을라" 광주 중기 보험가입 늘 시, 보험료 50%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광주 중소기업의 관련 보험가입이 늘었다. 28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9월30일 광주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368건으로, 1년 전

(352건) 보다 16건(4.5%) 증가했다. 보험 가입금액도 4646억원에서 4803억원으로 157억원(3.4%)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회수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신용 측은 설명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

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회수를 못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올해 9월 말 기준 이 보험을 통해 17개 광주 중소기업이 7억원 상당을 보상받았다. 신보와 광주시는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광주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최고 300만원)를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차세대 군용차 개발 나서



기아자동차가 차세대 군용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기아차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 광주 공장서 육군본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평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군용 표준 플랫폼이 적용되는 2.5t과 5t 중형 표준차량 상세설계검토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세부설계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후속 개발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아차의 군수차량 생산은 전량 광주공장에서 이뤄진다. 기아차는 연내 중형표준차량 시제품 제작에 착수, 내년에 정부의 시험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규격화와 초도 생산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군에 배치해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중형표준차량 개발 사업은 군과 기아차가 5년간 공동 투자해 현재 운용 중인 2.5t과 5t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하고 5t 방탄 칸 차량을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아차는 작년 12월 말 육군과 사업 계약을 맺은 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중형표준차량에 7L급 디젤 엔진과 자동변속기,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등 최신 상용 기술이 대거 탑재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아차는 신규 차량을 모듈화해 각종 무기 체계 탑재 등 후속 파생차 개발에 대비하고 차별화된 군용 특수사양과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콘셉트카도 선보인다. 개발이 완료된 ATV는 산업용, 레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5.26 (+14.42)	↓ 금리(국고채 3년)	0.914 (-0.003)
↑ 코스닥	806.20 (+22.47)	↑ 환율(USD)	1130.60 (+5.10)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은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한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허균을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